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 재협상의 중요성

한화 대전구장·삼성 신축구장 계약에도 영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운영권을 놓고 광주시와 KIA자동차가 벌이게 될 '재협상'은 결과에 따라 한국프로스포츠에 중대한 반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좁게는 KBO 구단들과 지자체간 협상에서 하나의 관례가 될 것이고, 넓게는 프로스포츠의 공공재적 성격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규정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공사비로 9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KIA와 광주시, 스포츠토트가 거의 3분의 1씩을 분담했다. KIA는 300억원을 쓴 대신 향후 25년간 구장 운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시비가 일었다. 광주시의회도 가세했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약속을 철저히 하고 '야구장 운영권을 재협상하자'고 돌아섰다.

KIA 구단은 난색을 표시했으나 모기업 KIA자동차가 광주시의 협상 파트너인 상황에서 재협상을 막기 어려웠다. 300억원을 투자하고 보장받은 권리를 백지화하는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KIA로서 어려운 결단인데, 최근 더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들었다.

광주시가 당초 5인으로 구성된 재협상위원을 7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원래 KIA자동차 추천 1명, 광주시 추천 1명, 양 측에서 추천한 회계전문가 1명씩, 그리고 KBO에서 추천한 인사 1명으로 짜여졌는데 광주시가 시의회와 시민단체 추천인물을 1명씩 추가하자고 한 것이다. 사실상 재협상위원단에서 수적우위를 점하겠다는 노골적 포석이다. KIA자동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당혹스런 입장이다.

야구계 관계자는 "광주시와 협상 추이를 한화와 삼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시즌 대전 구장이 확장됐고, 관중수도 급증했다. 이에 대전시가 한화와의 야구장 운영권 계약에 손을 대려고 한다. 2016시즌 신축구장에 입주하는 삼성과 대구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삼성, 박석민 공백 '빠른 발'로 메운다

최재원 합류로 발로 만드는 득점력 극대화

삼성은 다가오는 2016시즌에 큰 변화를 꾀해야 한다. 마운드 약화는 예견된 결과지만, 타선과 내야 수비에서 모두 핵 역할을 했던 박석민의 이탈은 갑작스럽다. 박석민이 프리에이전트(FA)가 돼 NC로 이적하면서 삼성이 메워야 할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NC는 올해 삼성과 점점을 펼친 끝에 정규시즌 2위에 올랐던 팀이다. 삼성으로선 새로운 무기와 대안을 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빠른 발'이다. 삼성은 올해도 기동력이 좋은 팀이었다. 팀 도루 157개로 2위에 올랐다. 1위 NC(204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거포들과 발 빠른 선수들의 조화가 빛났다. 내년 시즌에는 박석민이 빠진 대신 발로 만드는 득점력을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NC에서 박석민의 보상선수로 내·외야 멀티플레이어인 최재원을 뽑아온 이유도 그런 차원이다.

일단 삼성의 기존 멤버들 가운데선 올 시즌 도루 60개를 해낸 도루왕 박해민을 비롯해 지난해 도루왕 김상수(26개), 1번타자로 주로 기용된 구자욱(17개) 등이 남다른 '발야구' 실력을 뽐낸다. 9번 김상수~1번 구자욱~2번 박해민으로 타선이 이어질 때는 시너지 효과가 더 빛을 발한다. 또 올 시즌 막바지에는 입대 전까지 3년 연속 20도루 이상을 해냈던 배영섭도 돌아왔다. 장타력과 도루능력을 겸비한 외국인타자 아마이코 나바로(22개)와 재계약한 성공한다면, 발로는 그 어느 팀 부럽지 않은 라인업이 완성된다.

여기에 NC에서 대주자로 활약했던 최재원까지 합류했다. 올해 대주자로 쓸쓸한 활약을 펼쳤던 박찬도가 군에 입대하면서 생긴 빈 자리가 채울 수 있게 됐다. 이제 진짜 위기에 직면한 삼성에 작지만 큰 희망이 생겼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2016년 정규시즌 4월 1일 개막

KBO가 10일 2016년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4월 1일 개막해 9월 18일 종료되는 일정으로 팀당 144경기, 팀간 16차전씩 총 720경기가 편성됐다. 개막전은 편성원칙에 따라 2014년 최종순위를 기준으로 1-6위, 2-7위, 3-8위, 4-9위, 5-10위(kt)의 대결로 편성했다. 대구(두산-삼성), 고척(롯데-넥센), 마산(KIA-NC), 잠실(한화-LG), 문학(kt-SK)에서 3연전으로 치러진다.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포스팅시스템 ML 진출...한국 걸음마 단계”

MLBI 수석 부사장이 말하는 KBO리그

강정호·박병호 진출로 인식 변화하는 과정 KBO 산업화 위한 새수익모델·마케팅 필요 빅마켓·스몰마켓 구단 공동체 의식도 필수

메이저리그(MLB)의 글로벌 사업과 이벤트를 부문을 총괄하는 MLBI(MLB International)의 크리스 박(35) 수석 부사장이 9일과 10일 열린 2015 KBO 윈터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박 부사장은 10일 스포츠동아와 만나 KBO리그의 2가지 이슈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ML 진출을 꾀하려는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 "아직 초기단계"라고 선을 그었고, KBO리그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팅시스템 통한 선수 영입? 아직 걸음마 단계”

KBO리그 출신 선수들의 미국무대 진출이 활발해졌다.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ML에 진출한 류현진(28·LA 다저스), 강정호(28·피츠버그)가 성공을 거두며 ML 내에서도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L에는 한국인 타자가 거의 없었지만 강정호로 인해 한국에도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인식이 생겼다. 올해 또 한 명의 한국인 타자(박병호·미네소타)가 진출한 것처럼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포스팅시스템을 통한 ML 진출에 대해서는 "한국선수에 한해서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사장은 "복잡한 문제다. 각 팀은 재능 있는 선수를 좀더 어린 나이에 수급해서 키우기 위해, 또 여러 선수를 팀에 데리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하지만,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선수를 데려오려면 이적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길이가 멀다. 박 부사장은 "일본 선수의 경우 ML 구단에서 영입 경험이 많고 여러 선수를 통해 경쟁력이 입증됐지만 한국선수에 대해서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최영환 영입...‘한화의 꿈수’ 한 방에 날린 ‘롯데의 역습’

한화, FA보상선수 고려 편법 선수방출 롯데, 박한길 포함 파이어볼러 2명 성과

롯데가 이틀간 2명의 한화 출신 파이어볼러를 품에 안았다. 한화의 FA(프리에이전트) 보상선수 '꿈수'에 정면으로 한 방을 먹인 셈이 됐다.

롯데는 10일 한화에서 방출된 우완투수 최영환(29·사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전날 FA 심수창(34)의 한화 이적에 따른 보상 선수로 우완투수 박한길(21)을 지명했던 데 이어 또 한 번의 '깜짝 영입'이다.

최영환은 지난달 28일 제출된 한화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방출'이었다.



MLBI 크리스 박 부사장은 10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O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이 야구공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김진원 기자 kwangshin00@donga.com

그러나 결국은 '자승자박'이 됐다. 방출 시키는 순간, 해당 선수들의 신분은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구단의 제안과 관계없이 이들은 '자유의지'로 한화를 떠날 수 있었다. 최영환은 9월 30일 팔꿈치 인대접합수술을 받고, 10월 2일에는 췌장조각제거수술까지 받았다. 재활에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1월에는 군 입대(공익근무요원)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롯데는 미래를 위해 최영환에게 손을 내밀었다. 부산 출신인 최영환은

●“공동체 의식...빅마켓과 스몰마켓의 밸런스 중요”

박 부사장은 9일 서울 더 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5 KBO 윈터미팅에서 'MLB의 성장전략과 리그비전'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이날 MLB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KBO리그의 산업

✓.....Clip!

- 크리스 박 프로필
- ▲ 출생연도=1980년
- ▲ 출생지=샌프란시스코
- ▲ 학력=하버드대학 법대 로스쿨 졸업
- ▲ 경력=2004년 워싱턴DC 연방판사 보좌 변호사~2005년 MLB사무국 노사협의 담당~2007년 맥켄지컨설팅회사~2008년 MLB 경제전략분석~2012년 페이스북~2015년 MLB인터내셔널 수석부사장

화에 필요한 팀을 전수했다. 그러나 KBO 소속 구단들은 자체적으로 수익구조 모델을 찾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다. 야구단 운영비는 대부분 모기업의 계열사 홍보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자체의 협조나 정부의 지원도 저조한 편이다. 넥센은 모기업이 없이 메인스폰서십을 토대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자급력을 동원할 수 있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의부빈익빈 현상도 극심해지고 있다. 박 부사장은 "빅마켓과 스몰마켓의 편차는 ML에서도 이슈"라며 "큰 돈을 쓸 수 없는 스몰마켓은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없고, 좋은 선수가 없으면 성적을 낼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 구단이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팀 자체로도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고 구단의 합리적 운영에 힘써야 하지만 리그 차원의 공동체 의식도 필요하다. ML은 현재 빅마켓구단이 수익 몇 %를 스몰마켓구단과 공유하며 불평등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그림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넥센 우완투수 형 양훈.

넥센이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동생 양현.

‘넥센 투수형제’ 양훈-양현, 2년 후를 기약하다

양현 2차 드래프트로 넥센행 '형과 한 팀' 21일 상무입대 '함께 뛰는 날 기대 크다'

짧은 동거와 다시 한번 이별... 형은 올해 4월 서울로 올라왔다. 다니던 직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그를 여의뻐 봐온 라이벌 회사에서 스카우트했다. 처음에는 쉬이 적응하지 못했다. 몸이 여전한 안 좋았다. 회사는 그런 그를 하염없이 기다려줬다. 조금씩 몸 상태가 좋아지더니 기어코 일을 냈다. 회사가 원했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내년을 기대케 했다.

동생은 먼저 서울에서 객지생활을 했다. 4월 서울로 상경한 형과 여색한 동거가 시작됐다. 6년 위인 형은 어려웠지만, 자신의 '블 모델'이었다. 몸이 아파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항상 형을 응원했다. 형은 재기를 다짐했고, 다시 예전의 형으로 돌아와 있었다. 형은 우완투수 양훈(29), 동생은 우완언더핸드 양현(23)이다. 양훈의 전 직장은 한화,

새 직장은 넥센이다. 넥센은 이성열과 허도환을 내주고 양훈을 품에 안았다. 양훈은 시즌 말미 완벽하게 부활하며 포스트시즌에서 당당히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했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넥센은 두산의 4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양현을 지목했다. 형제가 같은 유니폼을 입은 것이다.

그러나 형제가 당장 한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양현이 21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찌감치 상무야구단에 합류했다. 양현은 "형과 한 팀에 땀 때끼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기대가 크다. 상무에서 부족했던 힘을 길러 넥센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웃었다. 마무리캠프를 성공적으로 보낸 양훈은 "이제 좀 힘이 붙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도 "동생을 걱정하지 않는다. 잘할 것이고, 한 집에서 조금씩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열흘. 형제의 대화는 그칠 줄 모르고 새어나온다.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